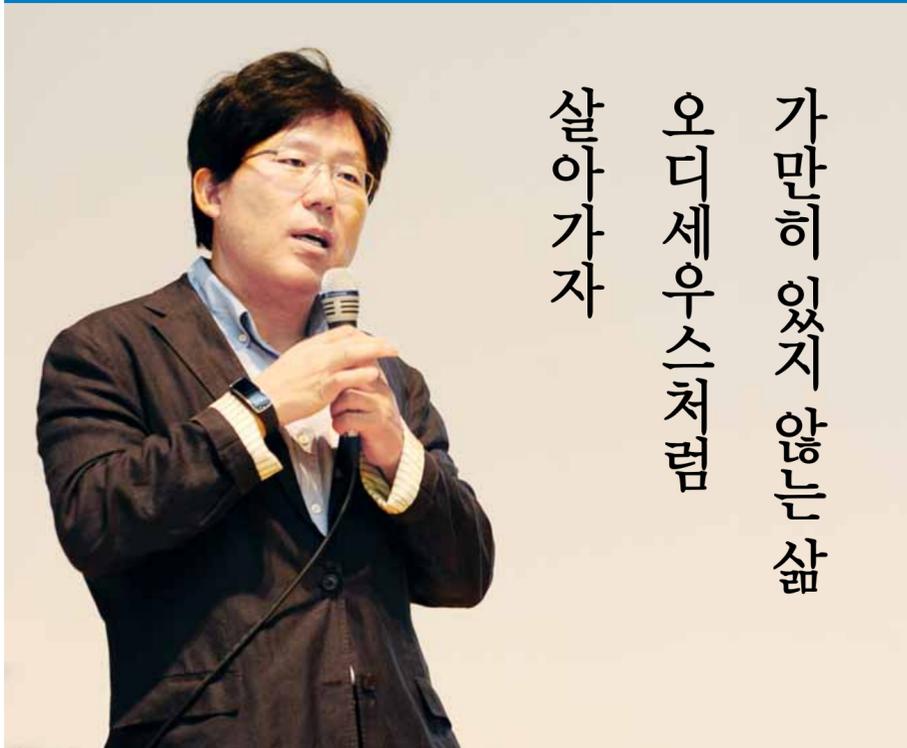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 광주서 강연... 그가 그리스 여행에 푹 빠진 이유는**



**가만히 있지 않는 삶  
오디세우스처럼  
살아가자**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가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어진 삶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게 옳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는 최초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2700년 전 고대인들은 노예로 태어나면 노예로서 살다가 죽는 것을 신의 뜻이자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메로스의 작품 속 ‘오디세우스’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신에게 굴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한 최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외과전문의, 경제평론가, 방송인, 칼럼니스트라는 소개 보다 ‘시골의사’로 더 잘 알려진 박경철(50)원장이 광주를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박 원장은 조선대병원(병원장 문경래)이 지난 11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주최한 강연에 연사로 초청돼 무대 위에 올랐다. 지난해 ‘문명의 배꼽 그리스’라는 책을 출간한 그는 800여명 청중을 향해 그리스와 그리스문화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의 가치에 대해 1시간 30분 동안 설명했다.

**의대생 시절 니코스 카잔차키스 작품 60여권 읽고**

**철학·의학·천문학 잉태한 그리스 3년째 ‘여행 중’**

“인간이 왜 만들어졌을까? 인간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를 고민했던 그리스인들은 철학과 의학, 천문학 등 인류문명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이후 나타난 로마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며 어떤 곳보다도 인종과 문화가 풍부했지만,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은 사라진 채 인간을 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능동적으로 사는 존재로 설명했던 그리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철학과 의학을 만든 주인공은 로마제국이 아닌 척박한 그리스였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지난 시간 그리스를 연구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박 원장은 오디세우스가 신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특히 2700년 전 페르시아제국이 100만 명의 군사를 동원, 40만명에 불과한 그리스 군을 공격하는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그들이 투표를 통해 스스로 운명을 결정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인류문화사에 기념비적인 작품인 오디세이아를 만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작품 60여권을 모두 읽고 가슴 속에 목표를 새겼다고 밝혔다. 작가를 잉태한 그리스에 대해 알고 싶다는 꿈을 꿴다는 박 원장.

지금까지도 강렬했던 당시 기억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책을 읽으며 문장에서 불꽃이 튀어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인상 깊은 책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의대를 졸업하기 전까지 국문은 물론 영문으로 번역된 작품까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작품 60여권을 모두 읽고 가슴 속에 목표를 새겼다고 밝혔다. 작가를 잉태한 그리스에 대해 알고 싶다는 꿈을 꿴다는 박 원장.

그는 “그리스’라는 한 나라를 10년간 여행하겠다는 목표가 다소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그곳 사람들과 문

화를 이해하는 게 삶의 목적이자 가장 큰 꿈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작품은 자유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자유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것이 자유의 본질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길가에 떨어져 있는 과일을 줍는 것처럼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쟁취하는, 때때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가치가 바로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지나가기를 마냥 기다리기보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회를 꿈꾸었던 그리스인들을 알기 위해 앞으로도 그리스 여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

**“세월호 실종자 모두 찾을때까지...”**

**진도 찾은 가수 김장훈 지속 방문키로  
‘세월호 특별법’ 천만인 서명운동 동참**

“마지막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꾸준히 진도를 방문할 겁니다.”

가수 김장훈이 12일 세월호 참사의 실종자 가족에게 힘이 되고자 국제 구호개발 단체인 굿피플과 함께 진도를 방문했다. 김장훈은 진도체육관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하룻밤을 현지에서 머물렀다. 또 이날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하는 길에도 가족대책위의 요청으로 동행했다.

김장훈은 이날 “세월호 참사가 서서히 잊혀지고 있는 지금, 실종자 가족의 마음이 가장 타들어갈 것”이라며 “함께 있던 희생자 유가족들이 떠나면서 심적으로 무척 고통스러울 것이란 생각이 굿피플과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마지막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이 나는 대로 진도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지금 ‘누가 방문하는 게 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서 가족대책위와 상의를 했고 그곳에 계신 분들의 심정을 전해들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장훈은 11일 단원고에 있는 안산을 방문해 유가족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뒤 가족대책위 회의를 참관하고 서명 운동 회의를 함께했다. 현재 그는 ‘트라우마 센터’처럼 체계적인 ‘힐링단’을 꾸리는데 적극 나섰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는 “힐링단은 굿피플, 심리치료전문 국제구호단체 이스라이드 등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전문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 중인 민간 차원의 조직이 될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리 치유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개별 정서에 맞게 상담 치료, 촉구 치료 등 다양한 메뉴얼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발품을 팔아 이와 관련한 단체들을 연계하는 것”이라며 “참여하는 연예인들은 힐링단에서 친근함을



7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이 함께하는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가수 김장훈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탕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명운동에 나서는 데 대해서도 “서명 운동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배우 정진영 씨도 거리로 나서 서명운동을 펼쳤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온라인에서도 투표용지를 내려받아 서명할 수 있으니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주택건설협, 국가유공자 주택 보수**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 달 동안 생활여건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개·보수하는 봉사활동을 펼친다.

광주·전남도회는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복수추천을 받아 선정한 애국지사 유족 박모(74)씨 유공자와 유족들의 노후주택 13가구의 거주공간 보수공사 및 지붕 개량, 보일러교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구당 평균 10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비는 전액 12개 봉사참가업체가 부담하며 6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전남도회의 봉사활동은 지난 1994년 시작됐으며 올해까지 총 156가구가 개·보수 혜택을 받았다. /임동률기자 exian@



**함평군공무원노조, 투병 동료에 성금**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광열·원목 세번째)이 투병 중인 동료를 돕기 위해 임시발간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김광열 위원장은 최근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이 직원은 올해 초부터 병원에서 이틀에 한 번 꼴로 신장투석을 받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모금운동을 벌인 결과 5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함평=황윤학기자 hwang@

**내방**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노희용 동구구청장 ▲송광운 북구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김동호(전 광주일보 동부취재본부장)·전영림씨 장남 학군 김병수·이정숙씨 오너 정림양=15일(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필동2가 한국의 집 02-2266-9101.

▲차기운(전 울산경찰서)·김옥덕(유니베라 남양알로에 대표)씨 장남 병훈군 김중환(유통업)·신금순씨 장녀 지영양=14일(토) 오후 5시 리페스타웨딩홀 4층 디아망홀(지하철 농성역 앞)

▲김태중·정희순씨 차남 만석군 공영욱·김옥숙씨 장녀 민영양=14일(토) 낮 12시 50분 상무리조트컨벤션웨딩홀 2층 데이지홀.

▲정경복(주) 새천 대표이사)군 남미(그린테라피 피부샵 대표)양=14일(토) 오후 5시 리페스타웨딩홀 2층 엘루체홀.

▲김병욱·이석순씨 장남 효준군 김창호·조익순씨 차녀 미라양=15일(일) 낮 12시 40분 아이리스웨딩홀 2층 헤라홀.

▲이동연·윤현옥씨 장남 상진군 조광홍(전 조선일보 호남취재본부장)·장숙희

씨 막내 지희양=15일(일) 낮 12시 S타워 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롯데마트 상무점 맞은편)

**동창회**

▲재광 순천 매산고 정기모임(회장 장진훈)=17일(화) 오후 7시 광주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옆 일전석.

**향우회**

▲재광 해남군 향우회(회장 박상근) 제35차 정기총회=19일(목) 오후 7시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4층 010-2073-5372.

**알림**

▲지적장애인 성인 주·아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서빌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 보호. 062-959-234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임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

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박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모집**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특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 과 회화기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심청재가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 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자랑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듬 수업 : 주 1~2회, 회당 40분),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부음**

▲김동현씨 별세 준형·민정·민우씨 부

친상=발인 13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문기홍씨 별세 남호·태현·윤자씨 부친상=발인 13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김성수씨 별세 원학·원우·순오·윤희씨 부친상=발인 13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Advertisement for funeral services with a table listing details for several families. The table has columns for family name, date, time, and location. At the bottom, there is a logo for 'MyKumho' and contact information: (062)227-4000.